

ESG ETF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Global ETF Analyst 박현정
hyunjeong.park@daishin.com

고배당을 넘어: 거버넌스에 반응하는 배당성장

- 금융주 강세와 세법 개정 기대감으로 국내 배당 ETF 자금 유입 뚜렷
- 배당성향, DPS 증가율, 최대주주 유인을 기준으로 배당성장주 후보군 선별
- 증권업 비중 높은 배당성장 전략이 고배당 전략 대비 성과 우수

국내 배당 ETF 자금 유입 뚜렷

연초 이후 국내 배당 ETF로 자금 유입 추세는 뚜렷하다. 올해 들어 9,775 억이 배당주 상품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는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한 배당주 ETF의 전체 AUM(2 조 7,418 억원) 대비 36% 정도를 차지한다.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금융주 강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배당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5년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화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 2015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정책 기간 동안 실제 현금배당 규모가 연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최근 상법 개정과 함께 배당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다시 논의됨에 따라 거버넌스를 고려한 배당 전략이 투자 판단의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배당성장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누구인가

배당정책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코스피 200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3 단계 스크리닝 로직(배당의지→유인→여력)을 적용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DPS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정책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우선 관찰 대상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배당성향이 25~34% 수준이더라도, 최근 2년간 배당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기업은 '전환 후보군'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최대주주 유인과 재무적 여력을 함께 갖춘 기업으로서 제도 변화 시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고배당 전략 이긴 배당성장 전략, 세법개정 수혜의 승자가 될 상품은?

배당주 투자는 크게 1)배당수익률만 고려하는 고배당 전략과 2)배당성장률을 고려하는 배당성장 전략으로 나뉜다. 연초 이후 배당성장 전략이 고배당 전략 대비 +3.7%p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배당성장 전략은 금융 섹터 중에서도 증권업 비중이 높고 보험업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증권업 투자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고배당 전략을 선호한다.

배당성장 ETF 중 증권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KODEX 배당성장(211900)과 TIGER 배당성장(211560)이며, 당사가 선별한 배당성향 35%에 도달할 유인이 있거나, 평균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 중 배당 확대 의지 여력이 높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품은 KoAct 배당성장액티브(476850)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당주 ETF. 고배당보다 우수했던 배당성장

배당 ETF AUM은
연초 대비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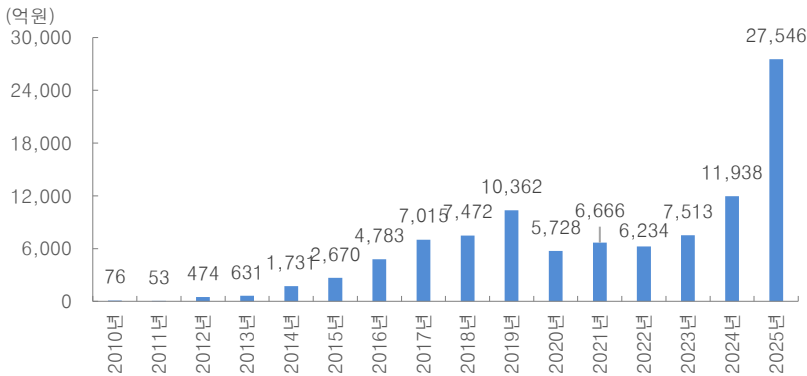
연초 이후 국내 배당 ETF로 자금 유입 추세는 뚜렷하다. 올해 들어 9,775억이 배당주 상품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는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한 배당주 ETF의 전체 AUM(2조 7,418억원) 대비 36% 수준이다. 배당주 ETF의 AUM은 연초 대비 +131% 상승했다.

국내 배당주 ETF 특징 중 눈에 띄는 점은 금융 섹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인 SCHD의 상위 구성 섹터는 에너지(21.1%), 필수소비재(19.1%), 헬스케어(15.7%), 산업재(12.5%), 금융(8.4%) 순이다. 한 편, 국내 대표 고배당주 ETF인 PLUS 고배당주(161510)는 금융(57.0%), 경기소비재(13.6%), 통신서비스(8.5%), 산업재(8.0%), 에너지(6.1%)로 금융 섹터가 비중을 압도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다.

금융주 강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제도 도입 기대감 덕분에

연초 이후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금이 배당주 ETF로 이동했다. 코스피 200 금융 지수는 연초 이후 +40.0% 상승했는데, 이는 코스피 지수보다 +13.2%p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도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림 1. 연초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연초대비 AUM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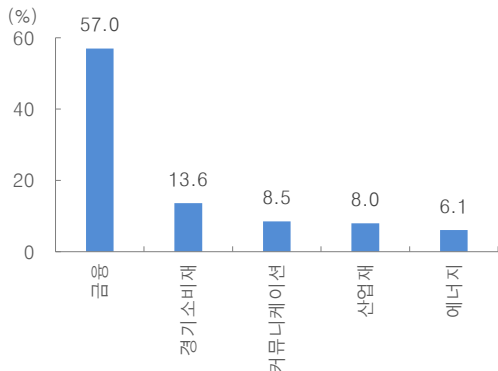
자료: Quantil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투자자금도 계속해서 배당주 ETF로 유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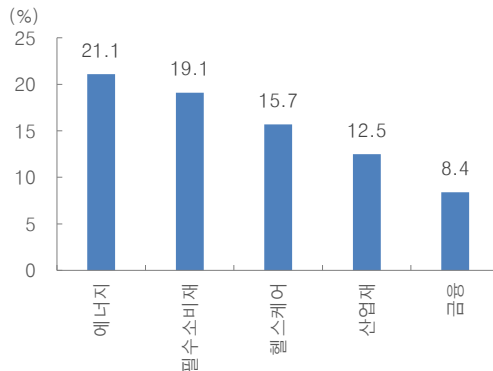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PLUS 고배당주 상위 구성 섹터. 금융 비중 높음



자료: 운용사 홈페이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SCHD 상위 구성 섹터. 에너지 비중 높음



자료: 운용사 홈페이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가능성도 배당주 투자 관심 높이는 요인

[단독] 최대주주 배당 확대 유도...세제혜택으로 '코스피 5000' 속도낸다

입력 2025.06.30 18:09 수정 2025.07.01 18:21 지면 A8

가까

☆ ↗ 💬 😊 📄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내년 시행

국정·기재부 '李 公약' 뒷받침



자료: 한국경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성장 지수가 고배당 지수 대비 +3.7%p 우수

배당주 투자는 크게 1) 배당수익률만 고려하는 고배당 전략과 2) 배당성장률을 고려하는 배당성장 전략으로 나뉜다. 연초 이후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와 FnGuide 고배당주 지수는 각각 +34.2%, +30.9%(코스피 배당성장 지수 성과가 +3.7%p 우수) 상승했다.

배당성장 지수와 고배당 지수는 모두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의 성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부 업종 구성 차이 때문이다. 배당성장주 지수는 증권업, 고배당 지수는 은행업의 비중이 더 높다. 연초 이후 금융주의 성과를 증권주가 주도해왔기 때문에 배당성장 지수 성과가 더 우수했다.

그림 6. 연초 이후 배당성장주 성과가 배당주보다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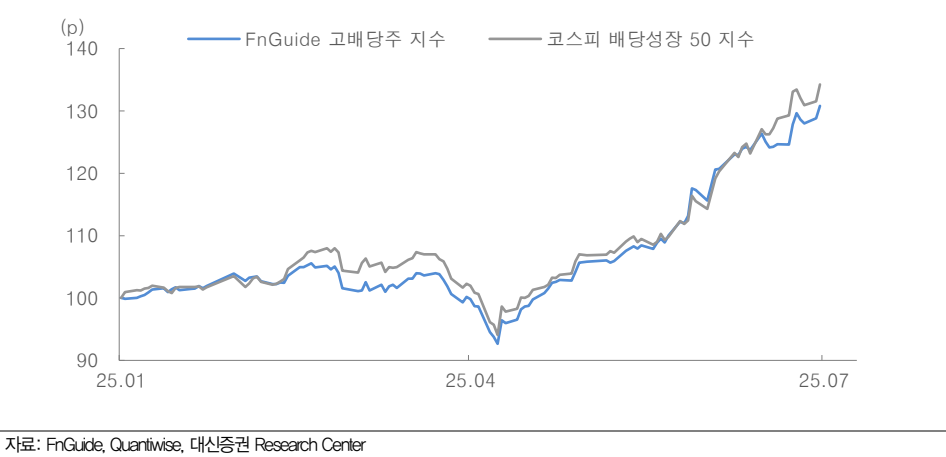


그림 7. 두 지수 모두 금융 섹터 비중 높음에도 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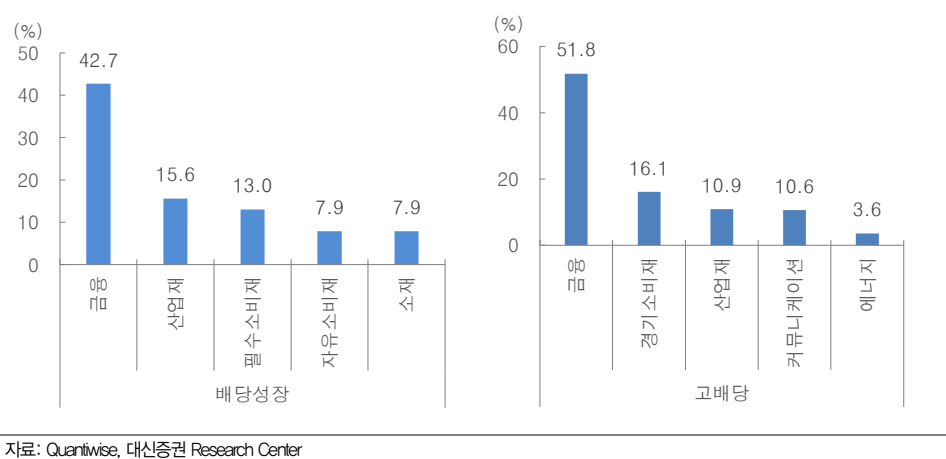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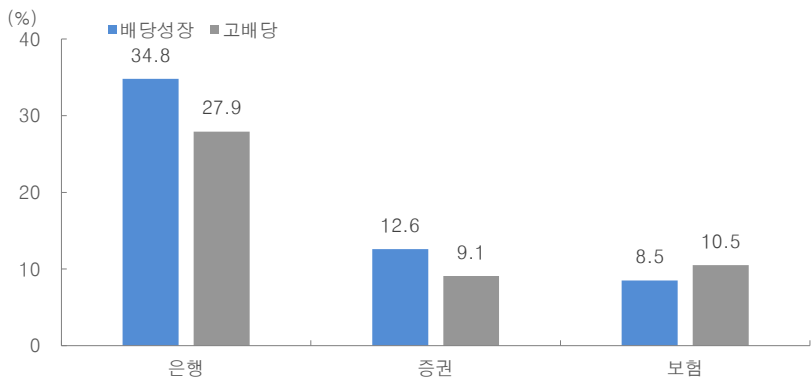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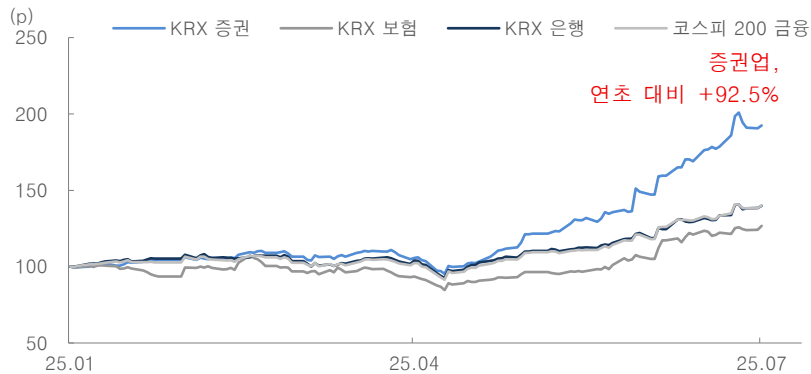


그림 8. 세부 구성업종 차이. 배당성장주는 증권업 비중이 높고 보험업 비중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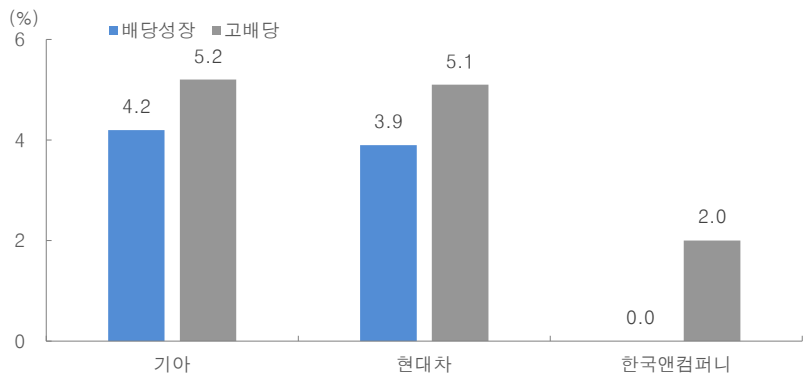
자료: Quantil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연초 이후 금융주 강세는 증권주가 주도. 보험업은 상대 성과 저조



자료: Quantil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또한 고배당주 지수는 자동차 종목 비중 높다는 점도 상대 성과 저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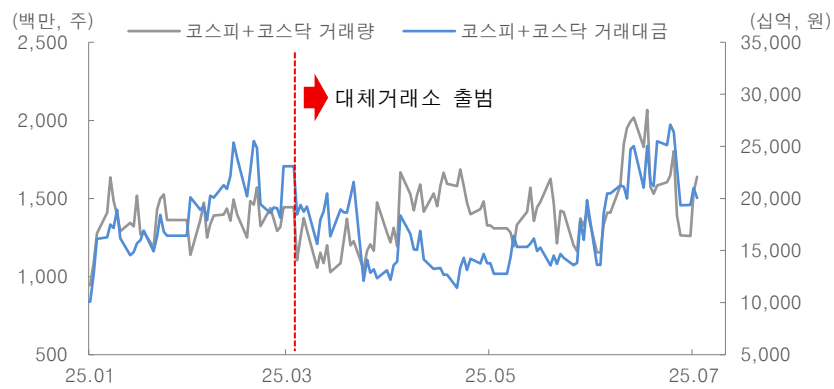


자료: Quantil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금융 섹터 모멘텀 유효, 고배당보다 배당성장 선호

코스피 지수의 강세,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유동성 증가, 추가적으로 남은 기준금리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금융 섹터 투자 모멘텀은 하반기에도 유효하다. 여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도입된다면 국내 배당주 투자 매력도는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금융 섹터 내에서도 하반기는 증권업 성과가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고배당 전략보다는 증권업 비중 높은 배당성장 전략 ETF를 선호한다.

그림 11.NXT 출범 이후 늘어난 거래량. 증시 호황 역시 증권업 실적 개선 요인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 1. 국내 배당주 ETF 12개월 분배율

| 분류 | 티커 | ETF명 | 2024년 | 최근 12개월 |
|------|---------|--------------------------|-------|---------|
| 배당성장 | A0052D0 |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 — | — |
| | A476850 | KoAct 배당성장액티브 | 2.1 | 5.7 |
| | A211560 | TIGER 배당성장 | 3.8 | 4.5 |
| | A211900 | KODEX 배당성장 | 3.6 | 4.0 |
| | A161510 | PLUS 고배당주 | 9.3 | 5.2 |
| | A466940 |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 6.1 | 5.9 |
| | A441800 | TIMEFOLIO Korea 플러스배당액티브 | 9.2 | 9.0 |
| | A325020 | KODEX 배당가치 | 4.5 | 2.3 |
| | A266160 | RISE 고배당 | 3.7 | 2.4 |
| | A484880 |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 2.7 | 5.0 |
| 고배당 | A315960 | RISE 대형고배당 10TR | 0.0 | 0.0 |
| | A279530 | KODEX 고배당주 | 4.4 | 5.8 |
| | A476850 | KoAct 배당성장액티브 | 2.1 | 5.7 |
| | A211560 | TIGER 배당성장 | 3.8 | 4.5 |
| | A210780 | TIGER 코스피고배당 | 5.4 | 4.2 |
| | A104530 | KIWOOM 고배당 | 6.4 | 6.0 |
| | A211900 | KODEX 배당성장 | 3.6 | 4.0 |
| | A445910 | TIGER MKF 배당귀족 | 2.6 | 2.7 |
| | A322410 | HANARO 고배당 | 4.5 | 4.8 |
| | A192720 | 파워 고배당저변동성 | 4.2 | 4.6 |
| | A281990 | RISE 중소형고배당 | 3.0 | 2.5 |
| | A270800 | RISE KQ 고배당 | 2.2 | 1.2 |
| | A251590 | PLUS 고배당저변동 50 | 6.6 | 5.2 |
| | A498860 |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 — | 1.3 |

주: 음영 표시는 상장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정책의 재정의: 고배당을 넘어 배당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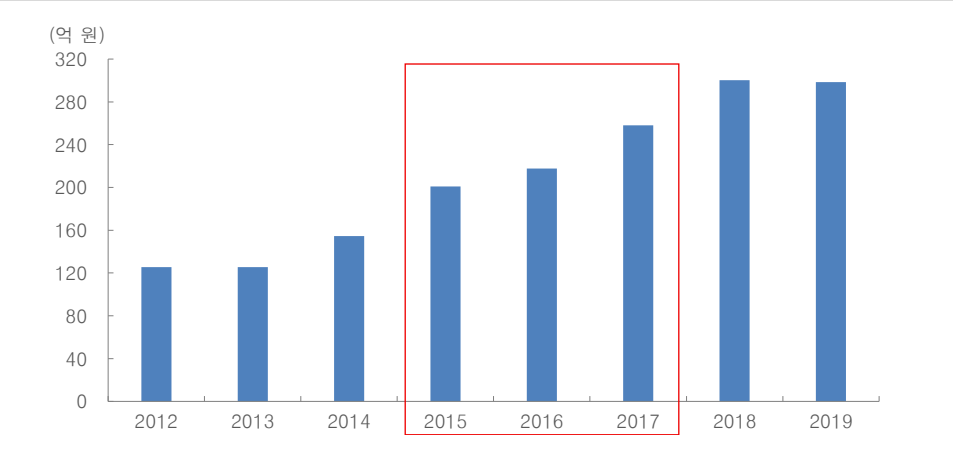
| | |
|-----------------------------------|---|
|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 발의로 투자자 관심 재부상 | 최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여부가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35% 이상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화된 세율(14%, 20%, 25%)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 과거에도 유사한 세제 인센티브 시행 |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른바 ‘배당소득 중대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의 배당에 대해 9%의 저율 원천징수를 허용함으로써,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
| 정책 시행기에 배당 확대가 실제로 나타남 | 정책 시행 기간 동안 실제 현금배당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코스피 전체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총액은 2014년 약 155억 원에서 2015년 201억 원, 2016년 218억 원, 2017년 25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표 1. 배당확대 유인을 위한 세제 정책 비교

| | 배당소득 중대세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092) |
|-------|---|---|
| 도입 목적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가계소득 증대 | 지배주주의 배당 회피 유인을 제거하고 배당성향 제고 유도 |
| 적용 대상 | 고배당 + 배당 증가율 높은 상장기업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 |
| 요건 | 시장 평균 대비 ① 배당성향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또는, ② 배당성향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배당성향) 35% 이상 |
| 과세 방식 | ①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②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허용: - 2천만원 이하: 14% - 2천~3억: 20% - 3억 초과: 25% |
| 배당 종류 |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중간배당은 제외 | 고소득자 포함 개인투자자 |

자료: 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의원정보시스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코스피 전체 상장기업의 연도별 현금배당액 추이



자료: Quantiver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성향 35% 이상: 정책 반응 가능성이 높은 우선 관찰 대상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국회에 발의된 현재, 만약 제도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리서치노트는 과거 고배당 실적에 주목하기보다, 앞으로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강한 기업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코스피200 기업을 모집단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스크리닝 로직을 적용했다.

- 1단계: 배당 의지(Willingness) 과거에 일관된 배당정책을 시행해왔는지, 그리고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는지를 통해 배당 확대에 대한 의지와 정책 일관성 확인
- 2단계: 배당 유인(Incentive)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는 의사결정 주체가 존재하는지 평가. 특히 최대주주가 주요 의사결정권자이면서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구조라면, 배당 확대를 실행할 유인이 강하다고 판단
- 3단계: 배당 여력(Capacity) 배당을 늘리고자 하는 의지와 유인이 있다 하더라도 재무적 실행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배당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현금성 자산이 현재 배당금 규모 대비 충분한지를 점검

1단계 ‘배당 의지’는 5개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고, 2020~2024년 DPS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단발적인 배당 증가가 아닌,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의 경영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이다. 특히 DPS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이라는 기준은 2015년 배당소득 중대세제에서 총배당금 증가율 요건이 최소 10%였던 점을 참고한 것으로, 배당 확대의 실질적 추세를 반영하고자 설정하였다.

2단계 ‘배당 유인’은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배당 확대가 기업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30%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지분율로 간주되며, 이 수준 이상의 최대주주는 배당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9.5%)이 최대 25%로 절반가량 인하되므로, 고배당 시 직접적 절세 효과를 체감하는 지배주주일수록 배당 확대 유인이 명확히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3단계 ‘배당 여력’은 최근 3년 평균 배당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의지와 유인이 있어도 실행할 수 있는 유동성과 재무 여건이 없다면 배당 확대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반대로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정책 변화 직후 DPS 증액 또는 중간배당 확대 등의 형태로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위 세 단계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당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우선 관찰 대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 고배당주가 아니라 정책적 유인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배당성장주로서, 시장의 선제적 관심이 요구되는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최근 5년 평균 배당성장 35% 이상인 기업 중 배당 확대 의지와 여력이 높은 기업

| 코드 | 기업명 | 시총 (조 원) | 평균 배당 성장(%) | DPS CAGR ^{주)} | 최대주주 지분율(%)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주요 내용 |
|---------|-------------|-------------|----------------|---------------------------|-------------|---|
| A010120 | LS ELECTRIC | 8.9 | 36.8 | 27.4 | (주)LS | 48.5 미공시 |
| A029780 | 삼성카드 | 5.9 | 44.9 | 11.7 | 삼성생명보험(주) | 71.9 미공시 |
| A001040 | CJ | 4.8 | 59.8 | 10.7 | 이재현 | 42.1 미공시 |
| A052690 | 한전기술 | 3.8 | 58.6 | 37.2 | 한국전력공사 | 51.0 최소 배당성장 40% 목표 |
| A081660 | 미스토홀딩스 | 2.2 | 59.5 | 59.6 | (주)피에몬테 | 35.8 미공시 |
| A282330 | BGF 리테일 | 2.2 | 35.6 | 14.3 | (주)비지에프 | 30.0 주주환원을 40% 지향 |
| A001430 | 세아베스틸자주 | 1.1 | 57.6 | 56.5 | (주)세아홀딩스 | 61.7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 최소 기본 배당금 1,000 원을 제시 |

주) DPS CAGR 은 2020~2024년 주당배당금의 연평균 성장률(%)
자료: Quantiwise, DART, K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성향 25~34%: 정책 반응 가능성이 높은 전환 후보군

현재 배당성향이 제도상 기준(35%)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충분하고 실행 여력까지 갖춘 기업은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업을 “정책 반응 가능성이 높은 전환 후보군”으로 정의하고,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분류하였다.

-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30% 이상 35% 미만, 또는
-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25% 이상 35% 미만이며, 최근 2년간 배당성향이 점진적으로 상승 중

이러한 기준은 과거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꾸준히 시행해왔고, 최근에는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전환 후보군은 아직 배당성향 35%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배당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가는 경로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평균 DPS 증가율 기준은 기존 요건 충족군보다 완화된 연평균 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 배당 유인(Incentive)과 3단계 배당 여력(Capacity)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전환 후보군은 현재 배당성향 기준(35%)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과거 배당 이력, 최근의 배당 강화 흐름, 최대주주 유인, 재무 여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세법 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배당 확대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우선 관찰 대상군 못지 않게 배당성장주로서의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3. 배당성향 35%에 도달하고자 할 유인이 있는 기업

| 코드 | 기업명 | 시총 (조 원) | 평균 배당 성향(%) | DPS CAGR ^{주1)} | 최대주주 지분율(%)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주요 내용 |
|---------|----------|-------------|----------------------|----------------------------|-------------|---|
| A047050 | 포스코인터내셔널 | 8.7 | 32.2 | 22.0 | 포스코홀딩스(주) | 70.7 2025~2027년 주주환원율 50% 수준, 20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
| A097950 | CJ제일제당 | 3.7 | 25.0 | 10.7 | 씨제이(주) | 40.9 미공시 |
| A000240 | 한국엔컴퍼니 | 1.8 | 32.5 | 18.9 | 조현범 | 42.0 미공시 |
| A005300 | 롯데칠성 | 1.1 | -16.2 ^{주2)} | 5.9 | 롯데지주(주) | 45.0 '28년까지 목표 주주환원율 30% 달성, 중간배당 실시 |
| A268280 | 미원에스씨 | 0.7 | 26.8 | 10.1 | 미원홀딩스주식회사 | 33.9 미공시 |

주 1) DPS CAGR은 2020~2024년 주당배당금의 연평균 성장률(%)
주 2) 평균 배당성향(%)은 최근 5년 평균을 기입, 롯데칠성은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이 34.8%로 30% 이상 35% 미만에 속하는 기업.
자료: Quantiwise, DART, K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성장주의 조건, 그리고 신뢰 가능한 실행력

정책 변화에 대응할 배당성장주에 주목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방향성만으로도 시장 내 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리서치노트는 단순 고 배당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다시 말해 배당정책을 주주환원 전략으로 내재화한 배당성장주에 주목했다.

스크리닝 결과, 배당 확대의 의지(과거 배당정책 일관성과 DPS 증가), 유인(최대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절세 효과), 여력(이익잉여금과 현금자산 기반 실행 가능성)을 모두 갖춘 기업은 정책 변화에 실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신뢰의 신호

여기에 더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3개년 수준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의 약속이자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의 공개적 근거가 된다. 특히 이 같은 자발적 공시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와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 변화는 모든 기업에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실행으로 옮기고, 주주에게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략적 배당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다. 그 기업을 선별해내는 것이 오늘날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의 핵심이자,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투자 판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상장 배당성장 ETF 4종 비교해보기

국내 배당성장 ETF는
총 4개

국내 주식시장에는 배당성장 ETF가 4개 상장되어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0052D0), TIGER 배당성장(211560), KODEX 배당성장(211900)는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이고, KoAct 배당성장액티브(476850)는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구성 종목이 바뀌는 액티브형이다.

증권업 비중 높은
KODEX 배당성장
(211900)과
TIGER 배당성장
(21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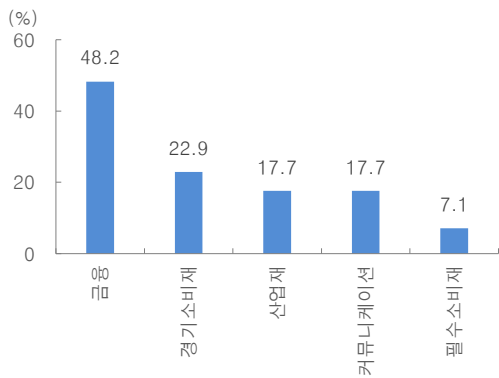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한국판 SCHD로 배당성장주에 퀄리티 스타일을 더하여 운용하는 상품이다. 전형적인 배당성장 ETF에 비해 금융, 자유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높다. KoAct 배당성장액티브는 국내 배당주 ETF에 비해 금융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산업재의 비중이 높다. 증권업 비중이 가장 높은 배당성장 ETF는 KODEX 배당성장 (21.4%)과 TIGER 배당성장(21.2%)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별한 배당성향 35%에 도달할 유인이 있거나, 평균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 중 배당 확대 의지와 여력이 높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ETF는 KoAct 배당성장액티브로 나타났다.

당사 선정 종목 보유
는 KoAct 배당성장액
티브(476850)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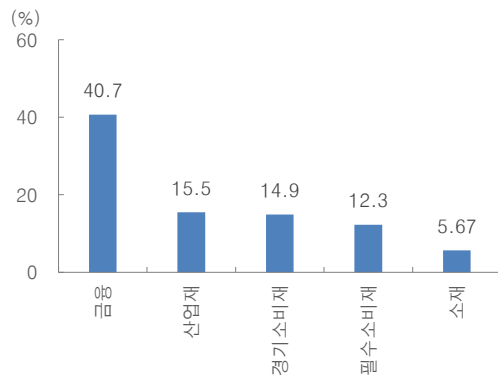
KoAct 배당성장액티브는 12.0%, TIGER 배당성장과 KODEX 배당성장은 10.6%,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3.8%를 보유하고 있다. KoAct 배당성장액티브가 보유한 종목은 CJ(6.2%), 한국엔컴퍼니(3.1%), 삼성카드(2.7%)다.

그림 13.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위 구성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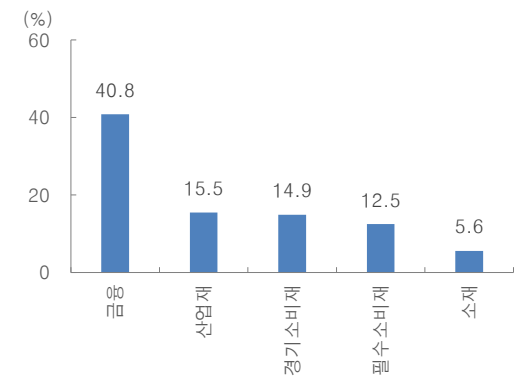
자료: ETF Chec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TIGER 배당성장 상위구성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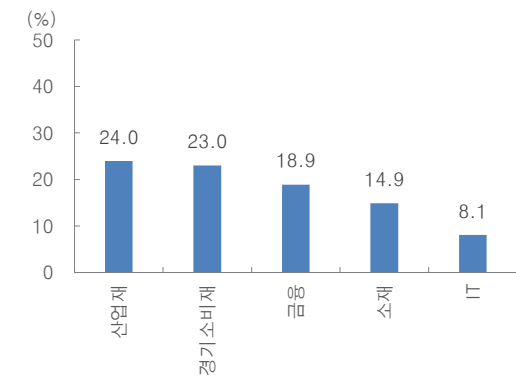
자료: ETF Chec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KODEX 배당성장 상위 구성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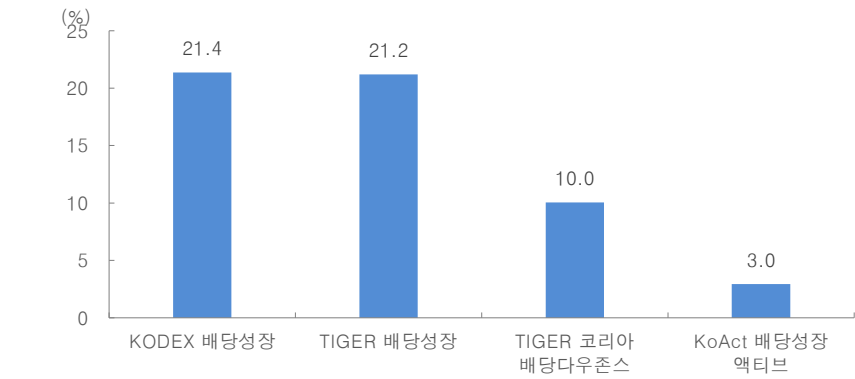
자료: ETF Chec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 KoAct 배당성장액티브 상위구성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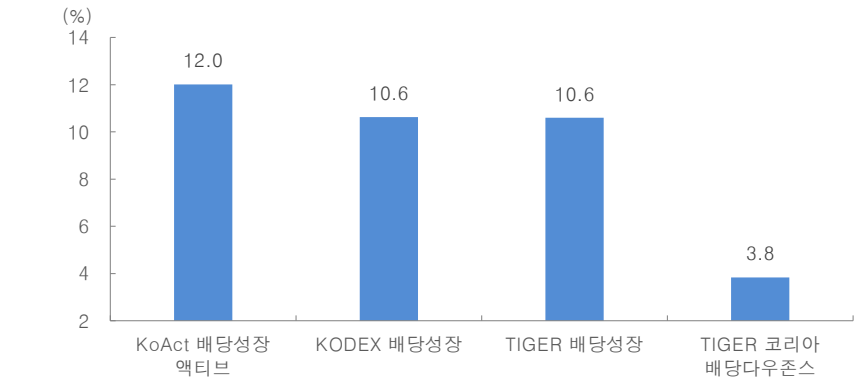
자료: ETF Chec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포트폴리오내 증권업종 비중. 가장 높은 상품은 KODEX 배당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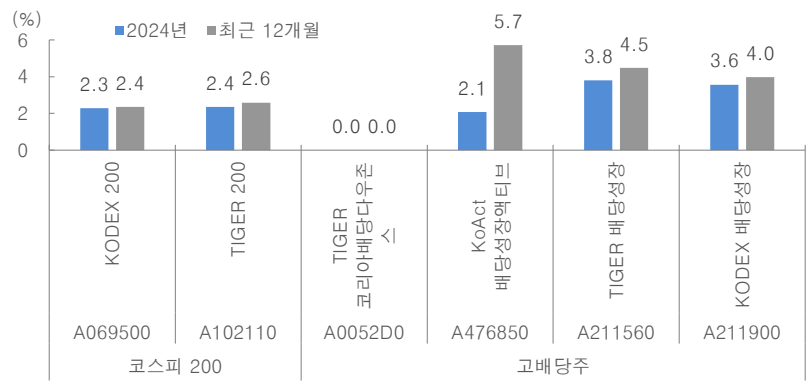
자료: 운용사 홈페이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8. 포트폴리오내 세법 개정 수혜 예상 기업 비중. KoAct 배당성장액티브 가장 높음



자료: 운용사 홈페이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배당성장 ETF 4종 최근 12개월 분배율 비교



주: TIGER 코리야배당다우존스는 5월 20일에 상장되어 아직 분배금 미지급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연, 박현정)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